



[정책동향] 美 하원, 유제품 소비 촉진 위한 'GIVE MILK' 법 발의

- 유제품 소비 확대 및 유제품 라벨링 표준화 추진



미국에서 유제품 소비 촉진과 유제품에 대한 새로운 식품 기준 마련을 위한 두개의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다.

소위 'GIVE MILK'와 'DAIRY PRIDE'라 불리는 법안은 농무부(USDA)에서 시행 중인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를 확대하고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표준화함은 물론 규칙적인 유제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GIVE MILK' 법안은 저소득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관리 및 영양 공급을 위해 농무부(USDA)에서 시행 중인 특별영양보충프로그램(WIC) 품목에 저지방 2%와 일반우유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발의되어 하원 교육 및 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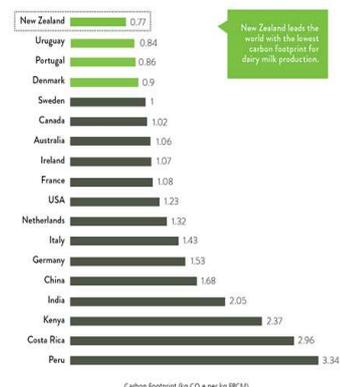
지난 2019년 3월 발의되어 하원 보건·교육·노동 및 연금위원회에 회부된 'DAIRY PRIDE' 법안은 식물성 대체식품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고 명확한 유제품 라벨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뉴욕주 공화당 엘리스 스테퍼닉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제품 표기로 낙농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rochesterfirst.com, 2월 10일자 >

[지속가능] 뉴질랜드, 세계 최저 탄소 발자국 기록 - AgResearch 연구

- FPCM 1kg당 0.77kg CO2e로 18개국 평균치인 1.47kg 대비 48% 적어

Carbon footprint of milk production 뉴질랜드 낙농업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탄소 발자국을 기록했다.



New Zealand leads the world with the lowest carbon footprint for dairy milk production.

최근 뉴질랜드 농업연구기관(AgResearch) 연구진이 세계 원유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18개국을 대상으로 낙농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뉴질랜드의 탄소 발자국이 평균치 대비 48%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각국의 유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SO 규격에 따라 탄소발자국을 재계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FPCM(유지방 및 단백질 보정유) 1kg당 0.77kg CO₂e(이산화탄소 환산치)를 배출한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페루로 3.34kg CO₂e를 기록했고, 18개국의 평균 배출량은 1.47kg CO₂e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DairyNZ 관계자는 뉴질랜드 낙농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자연방목, 목초지 조성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뒀다면 앞으로 효율적인 탄소 발자국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2월 18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